

아슬아슬 아스널 웡거 목 아슬아슬?

중 인 유럽 | 1승1무3패... 아스널 최악의 스타트

EPL 빅4 위상 흔들...리그 17위 강등가시권
빠듯한 살림에 스타들 부족...6년간 무관의 한
웡거 감독 경질설 속 구단은 “웡거를 믿는다”

전통의 명가다운 위용은 어디에도 없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의 불행한 행보는 어디까지 진행될까. 올 시즌 초반 5라운드까지 아스널의 성적은 1승1무3패(승점 4)로 17위다. 챔피언십(2부 리그) 강등권인 18위 풀럼FC와 격차는 고작 승점 1차이. 아센 웡거(62) 감독은 죽을 맛이다. 한 때 EPL 최고 사령탑 중 한 명으로 칭송받던 웡거 감독은 이제 온갖 질타와 비난 속에 경질설까지 나돌고 있다. 쓸쓸한 가을을 보내고 있는 웡거 감독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역대 최악의 시즌

지난 주말 블랙번 원정에서 3-4로 패한 뒤 이우드 파크 인터뷰 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은 마치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다. 당시 웡거 감독의 인터뷰에 참석한 스포츠동아 김신에 통신원은 “웡거 감독은 내내 침뚫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날이 선 질문들이 쏟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축구 인생 최대 위기다. 오죽 했으면 오랜 앙숙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먼저 “아스널에 웡거 감독만큼 적합한 이도 없다”고 웡거 감독의 편을 들어줬을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출신의 웡거 감독은 선수(수비수)로 활약할 때는 딱히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73년부터 75년까지 프랑스 퐁투즈에서 뛰었고, 이후 78년까지 ASPV스트라스부르에서 머물렀다. 하지만 여기까진 세미프로. 프로 무대로 옮긴 것은 79년부터였다. 81년까지 딱 세 시즌 동안 RC스트라스부르에서 뛰게 유일한 프로 경력이다. 그러나 지도자의 능력은 달랐다. RC스트라스부르 유소년 클럽 감독과 AS나시, AS모나코 사령탑을 거치며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일본 J리그 나고야 그램퍼스로 떠났다가 96년 10월부터 아스널 지휘봉을 잡았다.

전성기는 2003~2004시즌. 당시 아스널은 26승 12무, 경이로운 무패 기록으로 EPL 타이틀을 획득했다. 하지만 2005년 FA컵 우승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트로피를 채우지 못했다. 그 동안 아스널은 1997~1998시즌, 2001~2002시즌을 포함해 EPL 정상을 세 차례 등극했고 FA컵 4회(98, 02, 03, 05), 커뮤니티실드 4회(98, 99, 02, 04) 평정했다. 6년 간 이어지고 있는 ‘무관의 한’에 대한 팬들의 인

내심이 한계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해결책은 유임? 교체?

전술 선택의 논란, 전락 부재 등 비판들은 계속된다. 그나마 동정 여론은 스타플레이어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아스널의 빠듯한 살림살이로 인해 자신이 원하던 최고의 선수들을 제대로 영입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마이클 오언처럼 쟁쟁한 스타들을 벤치에 남겨놓을 정도로 엄청난 진용을 자랑하는 맨유와 달리 아스널 스쿼드는 상당히 뒤진다. 네임밸류는 물론이고 몸값은 비교조차 하기 어렵다. 그간 꾸역꾸역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웡거 감독이 늘 인정받는 부분이 있다면 유망주 육성 정책이다. 선수들의 장래를 바라보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별 볼일 없던 선수들을 슈퍼스타로 키워내 엄청난 가격에 팔아 고수의를 남긴다. 오페르마스, 프티, 아벨카 등이 대표적인 사례. 프랑스 최고 스타 중 한명인 티에리 앙리 또한 유벤투스(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벤치만 달구던 신세였지만 웡거 감독을 만나 팔자를 고쳤다.

아스널 구단은 여전히 웡거 감독을 신뢰한다. 최근 아스널의 이반 가지디스 단장은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최악의 초반 성적표를 받은 건 맞지만 웡거 감독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 막대한 금액을 들여 선수들을 데려오거나 감독 해임이 위기를 극복시키는데 단기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우리 명성은 웡거 감독이 이뤄낸 위대한 업적이다. 한 순간에 나쁜 감독으로 몰고 갈 수는 없다”고 옹호했다.

웡거 감독 외에 해답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보다 더한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웡거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축구 지도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아스널의 아센 웡거 감독.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궁금하다.
런던(영국) | AP연방뉴스

유럽파 코리안 주말 경기일정

〈한국시간〉

기성용(셀틱) 24일 오후 11시 인베네스(홈)	손흥민(함부르크) 24일 오전 3시(30분) 슈투트가르트(원정) MBC스포츠+
박주호(FC바젤) 25일 0시(45분) 툰(원정)	
박지성(맨유) 25일 오전 1시(30분) 스토크시티(원정) SBS ESPN	볼프스부르크 함부르크 발랑시엔
남태희(발랑시엔) 25일 오전 2시 마르세유(홈)	프랑스 스위스 오세르
박주영(아스널) 24일 오후 11시 볼턴(원정) SBS ESPN	구자철 (볼프스부르크) 24일 오후 10시(30분) 카이저슬라우테른(홈) MBC스포츠+
	정조국(오세르) 25일 오전 2시 틀루즈(원정)

프로축구 승부조작 10명에 실형

브로커·선수 등 37명 선고...최고 징역 5년형

K리그 정규리그와 컵 대회에서 승부조작 연루로 기소된 60명 중 공소 사실을 인정한 37명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이 중 10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23일 동료들을 포섭했거나 섭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승부조작 대금을 나눠주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윤성, 김덕중, 최성현, 박상욱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추징금 2925~3650만 원을 선고했다. 볼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백승민, 권집 역시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 나란히 징역 1년에 추징금 2925~33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추징금은 승부조작으로 받은 돈의 액수와 같다. 불법 토트 베티ంగ으로 18억의 부당 이익을 챙긴 브로커 김 모씨는 징역 5년, 또 다른 김 모씨에게 1년이 선고됐고, 흥정호를 협박해 4000만 원을 요구한 김명환은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3500만 원이 내려졌다. 나머지 27명에 대해선 집행유예 또는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브로커 상당수가 종적을 감춘 상태에서 협박을 받고 불법 행위에 참여한 사정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군 검찰은 상무 소속으로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동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장현 기자

조광래호, 손흥민 다시 콜!

내달 UAE와 WC예선...박주영 등 해외파 12명 호출

10월 A매치 경기에 12명의 해외파 선수들이 소집된다. 대한축구협회는 내달 7일 폴란드와의 친선경기과 11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치르는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에 나설 해외파 12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소속 구단에 소집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번 소집 명단에는 주장 박주영(아스널) 등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활약하는 정예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발목을 다쳐 3차 예선 1,2차전에 합류하지 못했던 손흥민(함부르크·사진)도 부상에서 회복되면서 다시 부름을 받았다. 조광래 감독은 26일 엔트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남장현 기자

ManClinic 비뇨기과 의원 맨남성의원

진료 내용 남성의학클리닉

조루 발기부전 (원터치·원주·원입·원출·원상·원입)

귀두/음경확대 21개 지점

강남신사역 02-592-2220 인 천 032-439-0007
신사역 1번출구 영동출발 옆 맨남성의원
청량리역 02-963-2182 부 천 역 032-657-0008
청량리역 4번출구 맨남성의원
연신내역 02-387-3939 분 당 031-707-7533
연신내역 4번출구 맨남성의원
신도림역 02-3439-7582 안양 평촌 031-421-6119
신도림역 1번출구 맨남성의원
천호역 02-477-3477 수 원 역 031-255-7582
천호역8번출구 브라운스톤천호 맨남성의원
수원역 2,3번 출구 맨남성의원
안 산 031-413-3555
고잔동 2001아파트 뒤 맨남성의원
천안 아산 041-563-0808
천안터미널 사거리 맨남성의원
대 전 042-484-7373
결리라이터빌딩도 맞은편 맨남성의원
전 주 063-252-4000
전북은행 본점 맞은편 맨남성의원
광주광역시 062-351-7582
신세계 백화점 사거리 맨남성의원
여수 순천 061-721-2555
조례동 조례삼거리 맨남성의원
대 구 053-743-0075
대구MBC 건너편 맨남성의원
포항 경주 054-231-7001
성원동 스타타워상가 302호 맨남성의원
울 산 052-227-7332
공인빌라타라 우리은행5층 맨남성의원
부산서면역 051-803-7533
서면역 1번출구 (구)천우정 4층 맨남성의원
창원 마산 055-256-0303
마산중앙동 시빅비스타빌 앞 맨남성의원

Upgrade Q

www.manclic.co.kr

남성용 일본 오오기社 수입 완 제품

미국·일본 전역에서 히트 상품으로 선정.
이제 한국에서도 남성의 당당함을 지켜드립니다.



- 복용 후 더 강하고 단단해지며 오래갑니다.
 - 애용자 90% 이상이 효과를 실감.
 - 일정기간 섭취 후 장기간의 지속력.
 - 천원 원료 제품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 식약청 심사 기준 통과

상담 문의 **010-5580-7972**

기업은행 252-046193-01-019 오오기 코리아

발기콜, 오르가즘콜



* 발기콜+소원대로 롱타임 = 250,000원
* 조루증콜+소원대로 롱타임 = 180,000원

▶ **발기콜리** = 병원에서 성기속으로 봉입플라트하는 것과 같은 원리고, 발기콜은 성기귀두와 몸통일부분은 안 덮여지고, 고풍족 성기 몸통 일부분에 콘돔토시를 끼우고, 토시속으로 봉입플라트가 되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80대, 성기확대자, 조루증 환자, 완전발기불능자도 즉시 발기되고 통증 없고 감각 좋고 길어지고 오르가즘에 오를 때까지 사정해도 시들지 않고 4시간 발기가 지속되어 아내의 불면증, 우울증, 뱃살, 의부증, 의처증 없어진다.

▶ **즉시 발기 안되고 조루증 안 없어지면 환불 보장.**

▶ 링, 반지, 오링, 성기형류충전기(펌프)처럼 성기목을 아프게 조이고 성기혈액을 흡사시켜서 영원한 발기불능자로 만드는 제품 아닙니다.

▶ 굵는 물에 녹는 가짜실리콘 발기콘돔은 독성과 발암물질 때문에 성기와 자궁에 질병과 암발병을 유발시키므로 사용하지 않, 너 모두 해가된다.

▶ 발기콜은 굵는 물에 소독하는 진짜 실리콘 제품이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특허품 (병원구적)

※ 발기과 안먹고 즉시 발기된다.

※ 표시나지 않고, 자연발기와 똑같아서 아내도 속는다.

010-9607-9970, 010-2762-2540, 070-8243-9970

입금 : 농협 351-0180-1510-63 구인숙